

지구의 미래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남도 풍광과 '자연교감' 광주한국화실사회 30일까지 회원전



응우옌 우담 트랑 작 '방안의 꼬끼리'

수십 개의 용의 조형물은 그 자체로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용의 형상을 본 것은 처음이다. 가느다란 구조물을 배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은 웅장하면서도 신비롭다. 용이 이렇게 친근한 작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용이 머무는 장소를 '용소'라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상징적인 공간인 용소를 신성시했다. 전통 한옥을 지을 때 화재를 막기 위해 용의 머리인 '용두'를 내걸었다. 또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용이 사는 연못에 용의 천적인 호랑이 머리를 빼뜨려 용이 놀라 하늘로 올라가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다는 기록도 있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조형하는 전시에서 만난 백정기 작가의 '용소'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수십 개의 용들이 저마다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오래도록 발걸음을 붙잡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아시아 작가들이 경험한 과거 환경을 매개로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이퀄리브리엄'을 열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복합 3, 4관에서 개최되는 '이퀄리브리엄'은 생태계에서 종의 종류와 수량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참여작가는 한국의 김준 작가를 비롯해 우담 트랑, 인도네시아의 몰어나 등 아시아 작가 11명이다.

전시는 모두 4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리로 모습을 담아내는 사운드 스케이프 작품들로 구성된 섹션 1은 '개인의 과거 기억 속 환경'에 주목한다. 눈에 띄는 작품은 '허백련 & 무등산 사운드스케이프'. 허백련의 '日出而作'(1954)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해 뜨면 밖에 나가 일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풍년이 들어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지낸다는 중국 당요의 노래인 '격양가'의 한 구절이기도 하다.

그림을 보는 동안 오디오를 통해 무등산과 관련한 다양한 소리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박진홍의 '사운드&싱글 채널비디오'는 풍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소리를 느낄 수 있다.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도 있고, 냇물이 흐르는 소리도 있다. 작가는 풍경 속 소리와 현재의 환경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섹션 2와 섹션 3의 작품은 환경과 관련된 축적된 개인의 기억에 초점을 맞췄다. 특정인의 기억이 어떻게 사회의 역사와 연결되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백정기의 '용소', 유지수의 '온산', 케친위안의 '전진', 응우옌 우담 트랑의 '방안의 꼬끼리' 등을 만날 수 있다.

유지수 작가의 '온산'은 울산에 있는 온산 지역이 개발로 훼손되고 주민들이 터전을 잃게 된 내력을 주목한다. '온산'은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으로, 작가는 다큐멘터리를 매개로 오늘날 사는 이들에게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몰어나 작 '오션 원더랜드'

Equilibrium

예술문화전당, 환경 주제 '이퀄리브리엄' 전 김준·라일라 친후이판 등 아시아 작가 11명 생태계 현재 미래·인간에 대한 경고 전달

리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박진홍의 '사운드&싱글 채널비디오'는 풍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소리를 느낄 수 있다.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도 있고, 냇물이 흐르는 소리도 있다. 작가는 풍경 속 소리와 현재의 환경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섹션 2와 섹션 3의 작품은 환경과 관련된 축적된 개인의 기억에 초점을 맞췄다. 특정인의 기억이 어떻게 사회의 역사와 연결되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백정기의 '용소', 유지수의 '온산', 케친위안의 '전진', 응우옌 우담 트랑의 '방안의 꼬끼리' 등을 만날 수 있다.

유지수 작가의 '온산'은 울산에 있는 온산 지역이 개발로 훼손되고 주민들이 터전을 잃게 된 내력을 주목한다. '온산'은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으로, 작가는 다큐멘터리를 매개로 오늘날 사는 이들에게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부터 흥미를 끄는 베트남 응우옌 우담 트랑의 '방안의 꼬끼리'는 호치민시의 오토바이 행렬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작가는 매일 마주치는 매연이 공기로 된 뱀과 같다고 전제한다. 뱀처럼 길게 늘어진 오토바이, 배기통에서 흘러나오는 매연이 마치 꿈틀거리는 뱀과 같다는 의미로 치환된다.

원래 '뱀의 꼬리'는 총 3개의 영상(라이트 박스, 방 안의 꼬끼리, 무지개 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3개의 영상을 포함해 '방 안의 꼬끼리'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베트남에는 꼬끼리가 많지만 서식지 파괴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실정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꼬끼리의 모습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인간들의 무지와 무모함에 대한 경고로 다가온다.

섹션 4는 섹션 1,2,3을 지나온 관람객들이 환경 치유와 미래 비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을 일깨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증강현실(AR), 실내 군집드론 비행 퍼포먼스 '회귀된 시간'이 눈길을 끈다.

장준영과 전지운이 장전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작품은 변화되는 장소에 주목하면서 시간차에 따른 영상을 기록한다. 다른 장소로 이주한 군집드론이 새로운 곳에 적응하며 균형을 이루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가들은 여러 모습들을 조합해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공간을 새로운 의미로 풀어내며 공존과 연대의 의미를 부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재민 작 '홍도소곤'

광주한국화실사회(회장 이재민) 26회 회원전이 오는 30일까지 ACC디자인호텔에서 열린다.

지난 1994년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한 광주한국화실사회는 이듬해 공동 예술의 거리 야외 전시장에서 첫 전시회 '점선면'전을 연 이후 매년 회원전을 열어왔다. 또 제주문화회관에서 열린 광주·제주 수목화교류전 '수목의 상'전을 비롯해 무등갤러리 기획초대 부채전, DS갤러리 기획초대 '하늘과 땅'전 등에도 초대됐다.

'자연교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회원들이 아름다운남도 풍광의 사계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코로나 19 때문에 정례적으로 열리는 월 정기 실사회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회원들은 소그룹을 구성, 구례 산동, 월출산, 청산도, 홍도 등을 찾았고 그 곳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이번 전시에는 김인화·이민식 교문을 비롯해 고재문·국경하·기경숙·김금옥 등 40여명의 회원이 함께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창작오페라 '학동엄마'

빛소리오페라단, 28일 광주아트홀



(사)빛소리오페라단이 창작오페라 '학동엄마'〈사진〉올해 마지막 공연을 오는 28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공연한다.

지난 2015년 초연 이후 꾸준한 관객과 만나온 이번 공연은 광주시 2020문화예술진흥민간단체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학동엄마'는 광주시 동구 학동의 지역적 이야기를 소재로 평범한 여성이 9남매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훌륭한 사회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여성상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협연 및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성악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총감독은 광주대 교수인 최덕식 빛소리오페라단 단장이, 작곡은 한국창작작곡가협회 허철재 회장이 맡았으며 박미에 광주대 교수가 연출했다.

또 윤희정·이원용·장희정·박정희·조현서·김윤덕·천현주·장희경·이유정·장오영 등이 출연한다. 50명을 선착순으로 초대하며, 공연은 광주아트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문의 062-227-744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대인동 반도전자상가에 도시재생 미디어아트

광주문화재단, 29일까지 '청년문화생태계조성-뫼단배 프로젝트' 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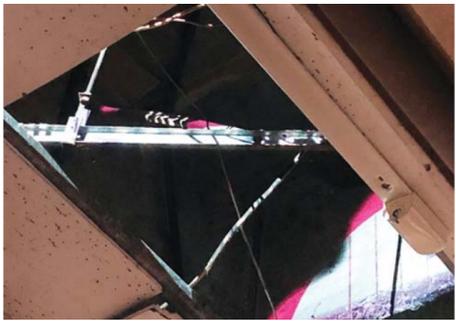
공공미술로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도시재생 전시가 상가 건물을 배경으로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은 '2020 청년문화생태계조성사업-뫼단배 프로젝트' 기획전시를 29일까지 반도전자상가 건물 2층(광주 동구 독립로 264번길 25) 유휴공간에서 개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뫼단배 항해를 돕는다는 의미처럼, 청년들의 창·제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참여자는 총 5팀(백거민, 보체, 50gHD, 면밀, 장동클렉티브)이며 주제는 '믿음∞: 여긴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전시를 기획한 독립큐레이터 팀 장동클렉티브(김소진, 이하영)는 다양한 이슈들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이번 전시도 낙후된 도심 속 공간을 예술을 매개로 기록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장에서는 영상과 사운드,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장동클렉티브는 김은경, 박다운, 이뿌리, 정덕용 네 명의 청년 작가들과 함께 지난 여름부터 광주 대인동에 위치한 반도전자상가 일대를 조사하고 상인들을 인터뷰했다. 특히 전자 산업 역사를 담고 있는 반도전자상가의 장소성을 살린 작품들을 선



이뿌리 작 '줄의 안쪽'

보인다. 잊혀져 가는 장소를 기록하고 상인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다.

장동클렉티브의 인스타그램(@jangdong_collective) 참조. 문의 010-3835-417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뉴스레터 구독 신청 이벤트'

광주비엔날레재단, 27일까지

(재)광주비엔날레(이하 재단)는 '뉴스레터 구독 신청 이벤트'를 27일까지 진행한다.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뉴스레터 구독 수신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3명)과 스타벅스 텀블러(10명) 등 상품을 발송한다.

재단은 코로나 시대 비대면 홍보 강화에 나서 '광주비엔날레 카카오톡 친구'에게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사안별 수시로 발송하고 있으며, 한달 간 광주비엔날레 관련 정보와 소식을 담은 월간 뉴스레터도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리미다플라자 광주호텔, 힐리데이인 광주호텔, ACC디자인호텔, ACC비지니스호텔, 유타 부티크 호텔&레지던스 등 지역 숙박 및 외식 업체와 협약을 맺고 홍보 등을 지원하는 공동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